

7 **광주일보**  
제17544호 2006년 9월 5일 화요일

## 지리산서 조난 등산객 2명 구조전 '청솔'이가 구했다



순천소방서 인명 구조전 '청솔'이와 조련사 박성준 소방사.

지리산에서 조난당한 등산객 2명이 인명 구조전의 도움으로 무사히 하산했다. 4일 새벽 1시20분경 등산객 이모(58·경남 하동군 하동읍), 정모(37·#)씨 등 2명이 피아골 대피소 인근에서 길을 잃었다. 정씨 등은 이날 오전 9시 노고단을 출발, 반야봉에 오른 후 삼도봉을 거쳐 불무장등 코스를 타고 피아골로 내려오던 중이었다. 신고를 받은 순천소방서는 소방대원 4명과 인명 구조전 '청솔'(6살·수컷)이를 데리고 민간산악구조대와 함께 수색작업에 나섰다. '청솔'이는 수색 1시간40분 만에 대피소 위쪽에 있는 용소골 약 1.5km 지점 바위 아래에서 실종자 2명을 찾아냈다. '헨들러'(조련사) 박성준 소방사는 "구조 당시 이씨 등은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연락이 두절된데다 랜턴 등 야간 등산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다"며 '청솔'이의 활약을 칭찬했다. 독일산 셰퍼드 '청솔'이는 올 여름 국내 첫 119 수상 인명 구조견으로 활약했으며, 지난 7월에는 강원도 집중호우 현장에도 투입됐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 발전노조 파업 철회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 돌입 15시간만인 4일 오후 4시30분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 철회로 상경투쟁에 나선 발전산업노조 소속 여수화력 지부 및 호남화력 지부 노조원 140여 명은 속속 사업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노조원이 복귀함에 따라 간부인력 투입 등 비상체제에 돌입한 여수·호남화력발전소는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다. 또 당초 우려했던 여천산업단지 전력 공급도 큰 문제가 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

25만Kw급 발전기 2대를 가동하고 있는 호남화력의 경우 파업 철회 소식에 이날 오후 비상 간부 회의를 갖고 정상 운전 준비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30만Kw급 발전기 1대와 20만Kw급 발전기 1대를 가동 중인 여수화력도 제어 시스템 점검 등을 시작으로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 법조계 '전관예우' 지금도 통한다

(前官禮遇)

■ 노회찬 민노당 의원 분석 자료  
올 변호사 개업 8명 중 7명이  
광주지법 구속사건 '수입 10결'에

광주지방법원 구속사건 수입건수 10위 내에 포함된 변호사 가운데 65%가 해당법원과 지검의 전관(前官)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법조 비리의 고질적인 원인인 전관예우(前官禮遇)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4일 대법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광주지법 구속사건 수입 10위 내에 포함된 개인변호사 26명 가운데 전관출신인 무려 17명(6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9명 중 6명이, 2005년 9명 중 4명이 전관 출신이었다. 특히 광주지법과 광주지검 관·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관사 8명·검사 2명)이 유독 많았던 올해의 경우는 광주지법 구속사건 수입 10위에 포함된 변호사 8명 중 7명이 전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년 연속 구속사건 수입 순위 10위권에 든 변호사는 광주지검 부장 검사를 끝으로 옷을 벗고 지난 2003년 8월 개업한 C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C 변호사는 ▲2004년 수입 1위 ▲2005년 3위 ▲2006년 4위를 차지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입 10위 내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 비율은 수원지법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서부지법(96%) 등의 순이었다. 광주지법은 전국 18개 법원 중 울산지법

■ 법원별 구속사건 수입 10위내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 비율

순위	법원명	2004년 (전관/개인)	2005년 (전관/개인)	2006년 6월 (전관/개인)	총계 (전관/개인)
1	수원	5/5	7/7	6/6	18/18 (100%)
2	서울서부	9/9	7/8	7/7	23/24 (96%)
3	서울북부	7/7	8/9	5/6	20/22 (91%)
4	의정부	9/10	9/10	9/10	27/30 (90%)
5	서울남부	6/7	7/8	9/11	22/26 (85%)
6	인천	5/5	5/7	6/7	16/19 (84%)
6	대구	7/8	8/9	6/8	21/25 (84%)
8	서울중앙	5/6	6/7	4/5	15/18 (83%)
9	서울동부	10/10	7/9	4/5	21/26 (81%)
10	창원	5/7	8/9	6/8	19/24 (79%)
11	광주	6/9	4/9	7/8	17/26 (65%)
11	울산	4/6	4/5	5/9	13/20 (65%)
13	대전	7/9	4/9	7/10	18/28 (64%)
14	제주	5/8	4/8	5/7	14/23 (61%)
15	부산	5/8	2/4	3/8	10/20 (50%)
16	춘천	5/10	3/8	2/8	10/26 (39%)
17	전주	4/10	4/9	4/14	12/33 (36%)
18	청주	3/8	2/8	4/12	9/28 (32%)

과 함께 11위를 차지했다. 이번 통계분석은 법무법인과 법률구조공단(공익법무관)을 제외한 개인변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노 의원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전관예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관예우(前官禮遇)=관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처리하거나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

## 나원침 (6918)



전력공급 차질 없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여수 호남화력발전처. 노조 집행부가 파업 15시간 만에 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 여천산단의 전력공급에는 차질을 빚지 않았다. /여수=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검찰 '칼 끝' 누굴 노리나?

시교육청 예산담당사무관  
광주지검, 전격 압수 수색  
비자금 조성 여부에 '촉각'

'몸통'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광주지검 특수부가 4일 광주시교육청 예산담당사무관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그 배경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 비리 조사인지 아니면 지역 교육계 고위직 등 '몸통'을 겨냥한 '깃발'수사의 시작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검은 4일 광주시교육청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예산담당사무관 A씨의 근무일지와 비망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감사공보담당관실과 총무과에 들러 행정 및 사무감사 자료, 징계대상 공무원 명부, 총무과장의 개인과일 등을 가져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조치가 부적절하다 A씨의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면서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 혐의점이 나오면 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교육청의 '숨방망이' 감사결과를 근거로 수사에 나선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점 ▲고위직도 아닌 예산 실무자의 개인 비리 수사를 위해 특수부가 직접 나섰다는 점 등 때문에 교육계 안팎이 술렁거리고 있다.

지역 교육계는 특히 검찰이 밝힌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 "검찰의 수사가 '뒷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방송장비업체 사장과 광주시 동구 계림동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국무총리실 임명감찰반에 적발됐으나 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경고'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불문경고는 죄는 묻지 않고 교육감이 경고만 취하는 것으로, 각종 포상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인사불이익은 없어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도 '황음잡대 사건'이후 아무런 인사조치도 받지 않았다. 경찰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 광주 S중 기자재 납품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교육청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 A씨 사건과 S중 사건을 병합해 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 수사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예계 동림회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디 총 353명 3534명  
문의 (062)366-4220

### 효문화전당 보상공 가로채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오)는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보상공 1억1천300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사기)로 Y학원 전 이사장 이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10대 3명 30여차례 날치기·반집탈이

○광주시내를 돌며 날치기와 1천만원 대 절도 행각을 벌인 '간 큰' 10대 3명이 경찰에 구속.

○광주 서부경찰은 4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행인들의 가방을 날치기하고 반집탈이를 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15·광주시 서구 쌍촌동) 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이들은 지난 7월 초 중국집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친 뒤 주로 여성의 손 가방을 날치기해 왔으며 지난달 23일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모 아파트에 침입, 현금 80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30여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100년의 사람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드는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김동원